

대전 성폭력범죄 여성 피해자 2016년 702건, 2018년 984건 3년 전보다 282건 증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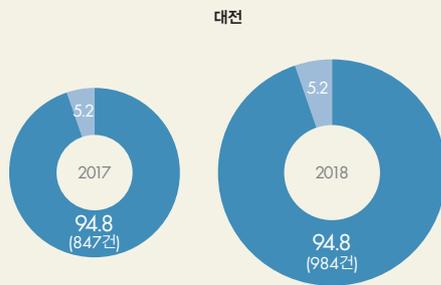
얼마 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일명 ‘n번방’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된 뒤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정준영 단독방 사건’에 이어 ‘n번방 사건’까지 ‘젠더폭력’을 일상생활 곳곳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성폭력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94.7%, 남성은 5.3%였으며, 대전의 수치 또한 여성 95.1%, 남성 4.9%(여성 702건, 남성 36건)로 여성 피해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¹⁾ 그렇다면 2016년 이후 2017년과 2018년까지 성폭력범죄의 성별, 연령별, 유형별 피해자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²⁾,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의 현황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주목해보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20대 여성이 가장 많아

2018년 대전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은 94.8%, 남성은 5.2%였으며, 2017년과 비교해 비율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건수로 살펴보면, 2018년 여성 피해자 수는 984건으로 2017년(847건)에 비해 137건 증가했다. 또한 2018년 대전 성폭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은 전국(여성 93.6%, 남성 6.8%) 대비 1.2%p 높은 수치였다. 그렇다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자. 대전의 여성 피해자는 15세 이하 66건, 16~20세 214건, 21~30세 390건으로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났고, 이후 31세 이후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산 모양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전국의 여성 피해자 수도 이와 같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비율

단위 : %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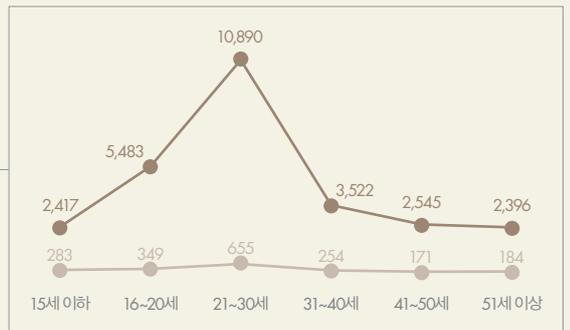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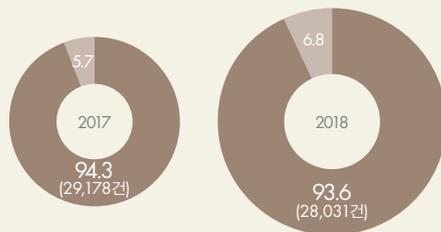
단위 : 건

● : 여성 ● : 남성



전국

● : 여성 ● : 남성



1)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자료(청구번호: 6236843/ 청구일자: 2019. 11. 27.)

2) 2019년 이후 성폭력범죄 자료는 확정된 통계 없음

· 성폭력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성적목적에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포함함

· 성별불상 및 연령미상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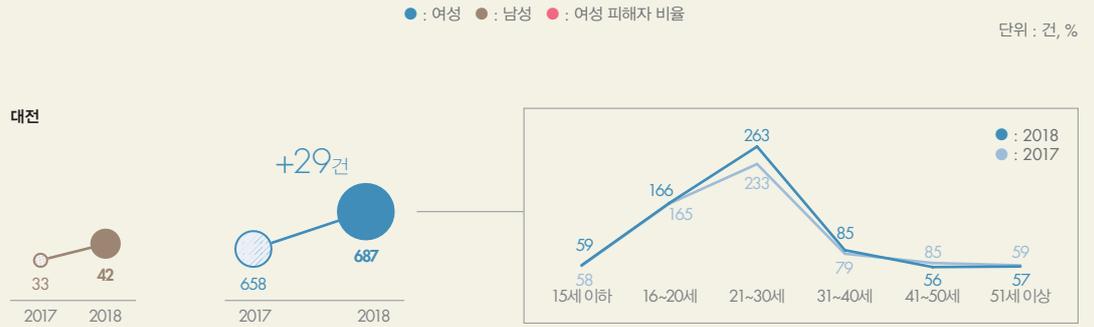
· 자료: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자료(청구번호: 6679200/ 청구일자: 2020. 4. 20.)

‘여전히 많이’ 일어나는 ‘강간·강제추행’, ‘급속히 증가’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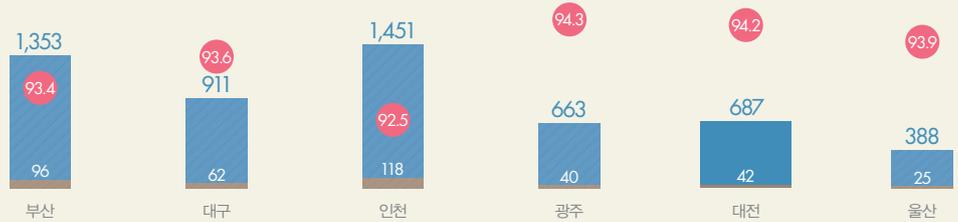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6914호)』에 명시된 네 가지 유형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을 살펴봤다.

‘강간·강제추행’ 피해자 현황

2018년 대전의 ‘강간·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는 여성 687건, 남성 42건으로 2017년에 비해 여성은 29건, 남성은 9건 증가했다. 여성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1~30세(2018년 263건)로 2017년(233건)과 비교해 30건이 증가했다. 2018년 6대 광역시 중 대전(94.2%)은 광주(94.3%) 다음으로 ‘강간·강제추행’ 여성 피해자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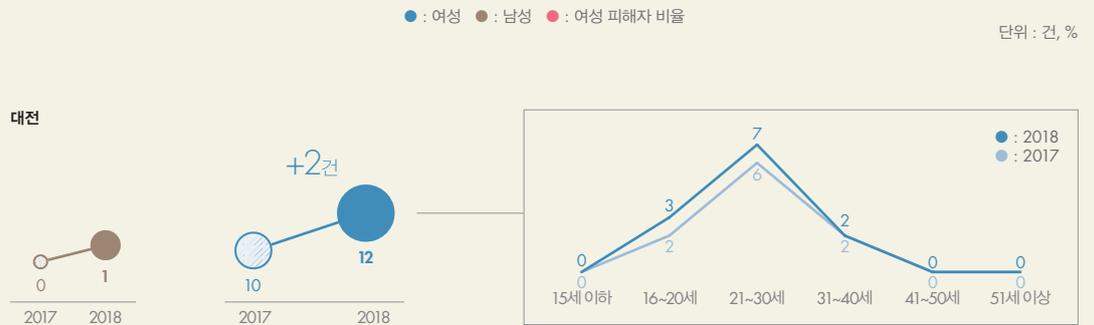


6대 광역시(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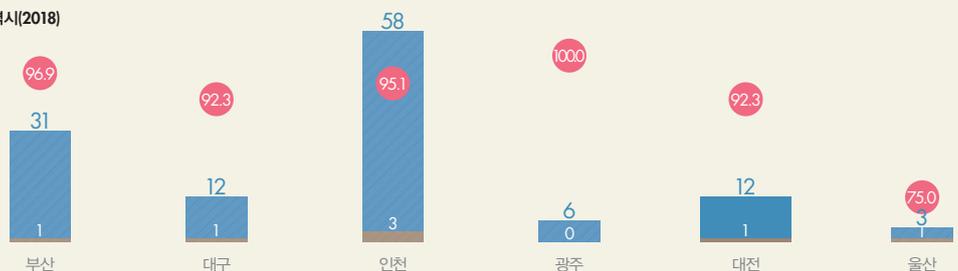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피해자 현황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로 인한 대전의 여성 피해자 수는 2017년 10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2건 증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1~30세(2017년 6건, 2018년 7건)가 가장 많았다. 6대 광역시의 2018년 여성 피해자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은 92.3%로 광주(100.0%), 부산(96.9%), 인천(95.1%) 다음이었다.



6대 광역시(2018)



- 강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
- 성별불상 및 연령미상은 제외함
- 자료: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자료(청구번호: 6679200/ 청구일자: 2020.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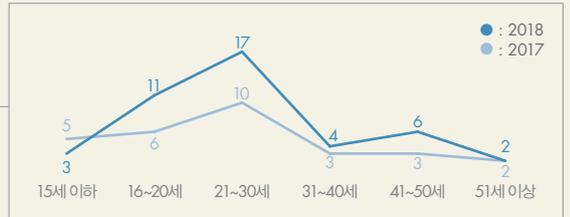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피해자 현황

대전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2018년 여성 43건, 남성 3건으로 2017년에 비해 여성은 14건이 증가했고 남성은 1건이 감소했다. 여성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21~30세(2017년 10건, 2018년 17건)였다. 2018년 6대 광역시 여성 피해자 비율은 광주, 울산(100.0%), 대구(95.8%), 부산(94.0%), 대전(93.5%), 인천(88.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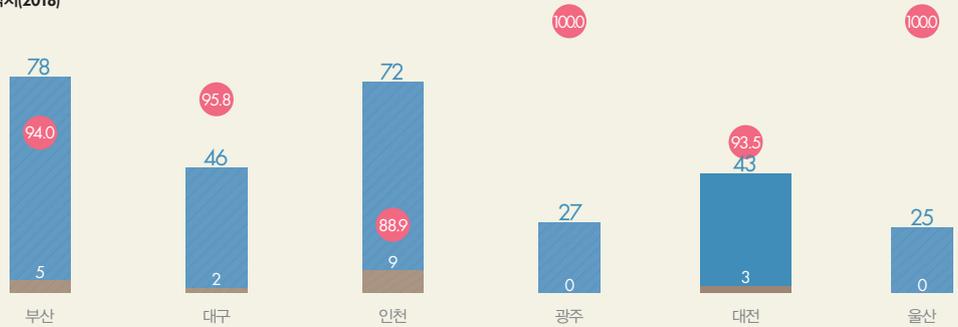
● : 여성 ● : 남성 ● : 여성 피해자 비율

단위 : 건, %

대전



6대 광역시(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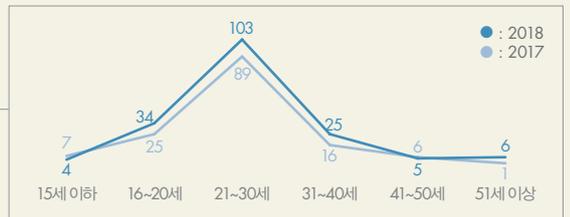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해자 현황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피해를 본 대전의 여성은 2017년 150건에서 2018년 242건으로 92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1~30세(2017년 89건, 2018년 103건)가 가장 많았고, 16~20세(2017년 25건, 2018년 34건)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18년 대전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6.8%로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96.9%) 다음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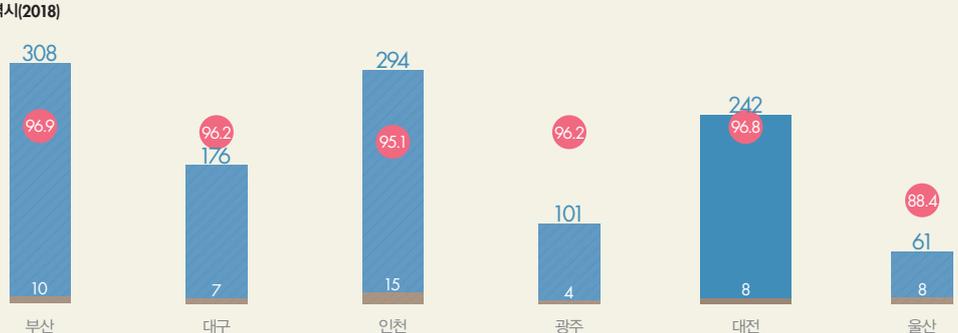
● : 여성 ● : 남성

단위 : 건, %

대전



6대 광역시(2018)



2017년 대비 4.5%p 상승한 대전 데이트폭력 여성 피해자 비율, 6대 광역시 중 상승폭 가장 커

대전의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의 유형별 검거 현황과 6대 광역시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현황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봤다.

데이트폭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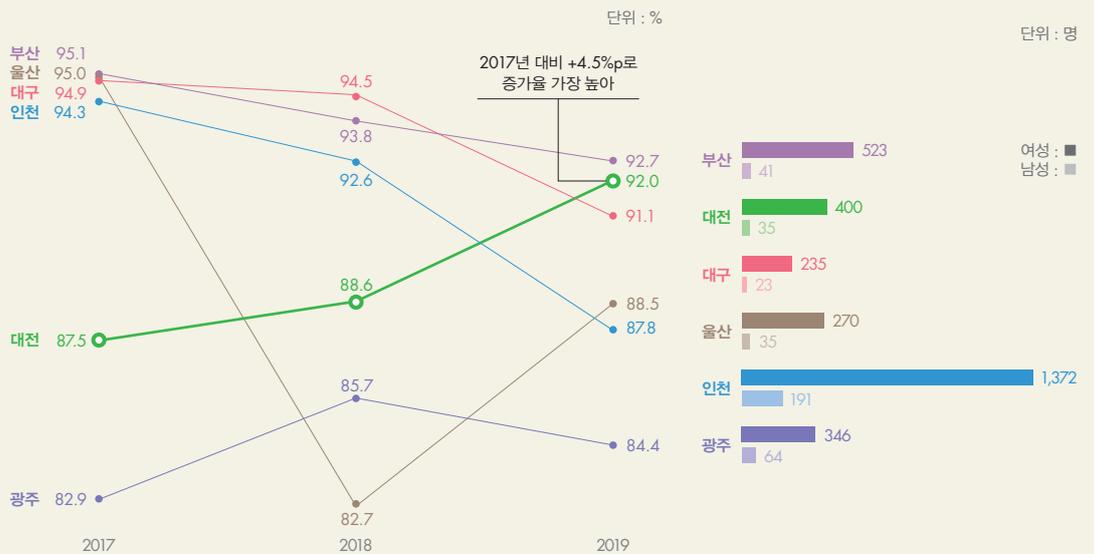
2019년 기준 데이트폭력 형사입건자는 479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9.5% 감소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폭행·상해 75.8%(363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범 등 기타(13.2%), 체포·감금·협박(7.3%), 성폭력(3.1%), 살인(미수포함, 0.6%) 순이었다. 2019년 6대 광역시 중 여성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92.7%)이었다. 그러나 비율이 아닌 피해자 수로 살펴보면 인천(여성 1,372명, 남성 191명)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4.5%p)을 보인 지역은 대전(2017년 87.5%, 2019년 92.0%)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데이트폭력 여성 피해자 비율

피해자 수(2019)



· 데이트폭력: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함. '데이트 관계'란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됨(출처: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의전화(2018),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유형별 검거 현황은 형사입건 수치임
· 피해자 수는 쌍방제외 자료임
· 자료: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자료(청구번호: 6679200/ 청구일자: 2020. 4. 20.)

젠더 콜로키움 # 비혼 # 생활동반자법 # 외롭지 않을 권리 # 황두영

2020년 제2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7회) 비혼의 삶과 외롭지 않을 권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해오고 있다. 5월 29일 열린 젠더 콜로키움에서는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법』을 주제로 황두영 작가의 발표가 있었다. 황두영 작가는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며, 이 법을

통해 '행복해지고 싶은 보편적 마음'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넘어 '특별한 한 사람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혼인 밖의 가족들이 불안정한 가족형태를 전전하지 않도록 해,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임을 시사했다.

